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요인 : 개인특성, 가족특성, 이주민특성을 중심으로

## The Social Network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 With a focus on Individual, Family, and Migrant Characteristics

충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강유진\*

Dept. of Child Studies, Chongshin Univ.  
Professor : Kang, Yoojean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social networks which married immigrant women have in Korea.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factors such as individual, family, and migrant characteristics contributing to the different patterns of social networks. I drew upon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on 60,719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from the '2009 Survey on Korean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Results showed that the foreign wives tended to maintain a connection with our society through contact with their neighbor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gatherings. Findings also showed that the types of social networks by the number of trusted neighbors and meetings were diverse among the immigrant women. In addition, the factors differentiating the types were mostly associated with socioeconomic resources or Korean proficiency. More interestingly, the immigrant women's contacts with their family members in their homeland contributed to their maintenance of more active social networks. These results provided a useful outloo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social network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which eventually showed a heterogeneous nature among them. At the societal level, supportive systems for enriching immigrant women's social networks should be developed particularly in terms of not their dependency, but their potential contributions to our society.

---

▲주제어(Key Words) : 결혼이주여성(married immigrant women), 사회적 관계(social networks), 개인적 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s), 가족 특성(family characteristics), 이주민 특성(immigrant characteristics)

### I. 문제제기

지난 20여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로의 변화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국제결혼의 증가일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를 보면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한국의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결혼이주여성과의 결혼이 약 89%를 이루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문화 2세대'의 증가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 혈연중심의 가족주의가치관이 강하였던 우리 사회에 '문화다양성'과 '민족다양성'의 이슈를 정

---

\* Corresponding Author: Kang, Yoojea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hongshin University, Tel: +82-2-3479-0403, E-mail: yoojin528@chongshin.ac.kr

면으로 다루도록 추진하고 있다. 결국 '다문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심적 키워드로서 사회적·학문적 차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제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담론은 단지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잘 적응하고 사회 속에서도 역량 있는 존재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어떻게 사회의 전향적인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듯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다문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적응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학문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가족과 사회에서 잘 적응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다문화 역량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구체적 연결고리로서 '사회적 관계'를 논의의 핵심에 두고자 한다. 개인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다. 사회 속에서 가족 혹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자원, 소속감 등을 취득하며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간다. 그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은 직업적 지위, 교육성과 등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이끄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Coleman, 1988; Stanton-Salazar & Dornbusch, 1995; Lee & Jang, 2008; Yee & Nam, 2008; Kim, 2012). 특히 이주민들이 현지 사회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함으로써 이들의 정착 및 적응을 돕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Williams, 2006; Ryan et al., 2008). 타 국가로 이주한 이후 현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접촉기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주민으로서 처한 불리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불안정성을 극복하도록 돕고, 이주민이 현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안정적 정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Kim, 2008).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개인을 가족, 공동체 등 집단의 관계적 맥락 속에서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삶에서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다(Park & Kim, 2006). 가족주의, 연고주의 등 혈연과 지연에 의한 공동체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혈연과 지연은 개인의 인맥을 형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된 준거로서 삶의 질에 중요하다(Yee & Nam, 2008). 따라서 이질적 문화적 배경과 외모를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일가친척 및 친구가 거의 없는 한국 사회에서 남편의 아내, 자녀의 어머니,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주민으로 당당히 살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전통

적인 인간관계 맥락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되어 살아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Park & Um, 2009; Lee & Kim, 2010; Won & Song, 2011; Bae & Kim, 2012)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주력해왔다. 이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지지,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자본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생활만족도,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막상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이웃과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지, 어떤 요인들이 이와 관련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 질적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자세히 기술한 연구들(Hwang, 2010; Kim, 2012; Rhoe et al., 2012)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에 초점을 맞추고 그 특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같이 하나,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이 특정 지역의 소수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반적 사회적 관계망 실태와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주민들은 현지 사회에서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정착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인적 관계망을 확보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이를 감안하면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심도 깊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여년에 걸친 우리 사회 결혼이주의 역사만큼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여성들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을 이루어 살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불안정한 결혼이주여성성이 있는 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관계망을 넓혀가는 결혼이주여성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형성한 사회적 관계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즉,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가족여건 등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며 사회에 통합되고 있는지

를 가능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살면서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이러한 관계의 내용에 차별성을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전반적 양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자료인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특성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보통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구조'와 '기능', 즉 '누구'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얼마나' 받는가 등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다(Park & Um, 2009). 예를 들면, 자주 연락하는 관계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활동 참여여부 등의 양적 차원 뿐 아니라, 정서, 정보, 소속감 등 사회적 관계의 기능적 차원 역시 사회적 관계망의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Cha, 2007; Son & Han, 2012).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를 양적 차원에 한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신뢰자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지의 사회활동정도 등 두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살필 것이다. 결국, 사회적 관계를 연결고리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체에 어떻게 조화되고 통합될 수 있을지, 이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라 하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 양상은 어떠한가?

[1-1] 신뢰자원의 양상은 어떠한가?

[1-2] 모임참여의 양상은 어떠한가?

[1-3] 신뢰자원과 모임참여를 고려한 사회적 관계 유형의 전반적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II. 선행연구고찰

### 1.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통합으로서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교류하면서 만들어가는 수많은 인적 관계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 속에서 부모자녀 간, 부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가족 외부의 친구, 이웃, 학교, 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 관계를 창출한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본다면 사회적 관계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다양한 관계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삶에서 이것은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선행연구들(Lin, Ensel, & Vaughn, 1981; Granovetter, 1983; Coleman, 1988; Lin, 1999; Cornwell & Cornwell, 2008; Yee & Nam, 2008; Lee, 2011; Rho et al., 2012)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삶의 욕구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얻는다는 점을 주목해왔다. 다양한 지위와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교류함으로써 개인이 혼자라면 접근할 수 없는 풍부한 정보와 새로운 성공의 기회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삶에 유용하게 창출되는 자원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며(Coleman, 1988), 종종 이 두 가지 용어가 동일한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Ryan et al., 2008).

이처럼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와 건강 등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들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Park, 2000; Han, Kim, & Kim, 2003; Jung, 2004; Cha, 2007; Park, 2007; Son & Han, 2012)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지지와 따뜻한 관심이 개인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완화 등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의 두 변수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중재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작용을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 것들이다.

또한 개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들이 가족, 친구, 학교,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차원의 생태체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관계는 그 개인이 사회에 얼마나 연결되고 통합되는지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유용한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생태체계와의 연결을 통해 얻는 사회적 자본의 종류 역시 다양하다.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개인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 수준의 생태체계와의 상호작용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들(Boisjoly, Duncun, & Hofferth, 1995; Ryan et al. 2008)을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면, Granovetter(1974)는 사회적 관계망의 '강도(strength)'에 따라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대로부터 상이한 사회적 지원을 얻으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연결망의 사용방식도 달라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동질성이 강한 '강한 연결망'을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활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Wellman(2002)은 친밀한 가족과 친구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범위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자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한 바 있다. 결국,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양한 생태체계와 관련을 맺고 이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으며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 속에 통합되어 살아 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개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이를 통해 삶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얻으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관계는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 결국,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는 작업은 개인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생태체계와 연결되어 살아가는지 보여주며, 동시에 개인이 얼마나 사회적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를 추측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로서 사회적 관계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이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신뢰자원과 모임참여의 두 가지를 구성하였다. '신뢰자원'은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도움을 얻을 만한 신뢰하는 사회적 자원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모임참여'는 가족, 친구, 지역주민 등 다양한 수준의 생태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이 만든 사회적 관계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 통합되었는지, 혹은 고립이 되었는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동시에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결혼이주여성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출신국과 전혀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처럼 타민족과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문화권에 정착하여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족 환경이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여성의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가족 간 의사소통의 문제, 생활습관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 부부간 갈등, 그리고 빈곤 등의 문제로 인해 결혼생활 및 가족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된다(Kang, 1999; Lee, 2005; Han, 2006; Kwon & Park, 2007; Park & Um, 2009). 이러한 불안정한 가족환경은 개인적 차

원에서 볼 때 낮은 문화적 환경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배가시키고, 사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통합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부적응은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출신국 역시 다양해짐(Bae & Kim, 2012)을 감안할 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이 적응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다문화 역량을 가진 가족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과제이다. 기존 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이 가족과 사회 속에서 적응 상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서비스 욕구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데 치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어떻게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의 적응을 돕는 구체적 기재로서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주자 혹은 신입자(new comer)들이 새로운 문화에서 적응하는데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이미 여러 연구들(Delechat, 2001; Morrison, 2002; Williams, 2006; Ryan et al., 2008)이 주목한 바 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보와 직업 등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원이 된다. 현지에서 사귀 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어떤 곳에서 무엇을 사야하는지, 의료 및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매우 구체적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새로운 문화의 규범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적이고 영구적 정착을 촉진하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과의 연결망을 만드는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망은 이주민과 현지인을 연결하는 중간 다리가 됨으로써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권에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 이주민들의 사회적 참여 및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다(Lee & Kim, 2010).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인맥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가 강하게 존재하였으며, 이에 토대를 둔 모임이 사회생활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가족주의로부터 파생된 특이한 친소구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맥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계층인식, 신뢰, 차별의식, 정치성향 등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주관적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Yee & Nam, 2008).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이 이웃과 관계망을 잘 형성해가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사회적 성취를 돕는데 더욱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통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변인

결혼이주여성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논의의 중심에 둔 연구들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 연구들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첫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관계망의 역할, 특히 삶의 만족과 적응,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역할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사회적 자원으로서 관계망과 적응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직접적 인과관계를 탐색하거나(Chung & Han, 2009; Park & Um, 2009; Lee & Kim, 2010; Won & Song, 2011), 관계망을 매개변인으로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Bae & Kim, 2012). 그 결과, 가족,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건강과 생활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절요인으로서 삶의 부정적 요인의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Hwang, 2010; Kim, 2012; Rho et al., 2012)은 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조사대상의 인터뷰 자료를 질적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정이 어떠한지, 그 내용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이 관계들을 통해 어떠한 자원을 상호 교환하는지 등을 보여줌으로써 양적 분석으로써 확인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의 보다 역동적인 사회적응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가족, 한국인·외국인 친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생태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대다수가 소수의 표본 혹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해 현 시대의 우리사회 다문화 여성들의 전반적 상황을 예상하고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 할지라도 사회적 관계를 종속변수로 두고 그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보다 주로 독립변수로서 사용하여 삶의 질과의 인과적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치중한 경향이다. 이 때문에 막상 어떤 특성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결혼이주의 역사가 수십 년간 진행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이 다양화하고, 이들의 거주지역, 계층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연구대상을 폭넓게 아우르고, 이들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지 전반적 실태와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점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자체를 논의의 핵심에 두고 이것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Granovetter, 1974; Stanton-Salazar, 1995; Lin, 1999; Cha, 2007; Cornwell & Cornwell, 2008)은 개인의 결혼지위,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등에 따라 얼마나 차별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불평등하게 획득되는지를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을 우리 사회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하고자 한다. 즉,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여건과 가족상황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령, 국적, 교육수준, 거주지 등 개인적 특성 및 자녀유무, 가구형태, 월소득 등 가족의 구조적 여건과 경제적 상태 등의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주민의 입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한국어능력, 배우자와 결혼한 경로,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역시 함께 고려할 것이다. 한국어 능력은 이미 여러 연구(Jun et al., 2009; Kim & Lee, 2010; Won & Song, 2011)들을 통해 한국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언어적 수월성은 이웃을 사귀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배우자와 결혼한 경로와 한국생활 적응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결혼업체를 통한 것보다 가족 혹은 친구의 소개를 통해 결혼한 경우 한국 생활에 대한 이해와 정보력이 더 크다는 연구(Kim, 2012)를 감안할 때, 결혼경로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현지에서 출신국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출신국과의 네트워크 역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Lee, 2011)을 고려하여,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요인과 사회적 관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자 한국 사회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관계 특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개인과 가족특성, 그리고 이주민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의 유형이 이러한 변인들에 의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단일한 청사진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주민으로서 다양한 개인적, 가족적 상황이 어떻게 사회적 적응과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는데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반면 사회적으로 잘 통합되어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떠한 여성들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족과 여성의 복지감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주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9년 조사시점에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구 13만 1천여 가구와, 외국인 배우자 73,669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 폭넓은 측면에서 삶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중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주여성 중 2009년 조사시점에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유배우 여성결혼이민자 60,719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 2. 측정도구

##### 1)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이다. 사회적 관계의 측정은 일상생활에서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뢰자원'과, 얼마나 다양한 모임활동에 참여하는지를 나타내는 '모임참여 수'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이다. 종속변수의 측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뢰자원'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에 함께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다시 각각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만약 있다면

그가 모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기타 외국인인지를 물었다. 그래서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응답하게 한 것이다. '신뢰자원'의 측정은 각 항목에서 모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기타 외국인 이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여 누구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을 하면 1,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0으로 다시 재코딩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서 '신뢰자원'의 변수를 창출하였다. 따라서 '신뢰자원' 점수의 범위는 0에서 3의 값을 갖는다. 0은 세 가지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고 3은 세 영역 모두에서 누구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모임참여는 지난 1년간 본인의 가족·친척모임, 배우자의 가족·친척모임, 모국인친구모임, 지역주민모임 등 네 가지 사회적 모임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 중 '모임참여 수'는 각 모임에 대해 전혀 참여 하지 않음은 0, 1년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으면 1로 재코딩하여, 다시 이 네 가지 영역의 값을 합산한 것이다. 따라서 0-4의 범위를 갖는다. '참여정도'는 각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혀 참여하지 않음'은 0, '1주일에 두 번 이상'은 5의 값을 주는 등간척도로써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유형은 '신뢰자원'과 '모임참여 수'를 두 가지 축으로 하여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적극형', '모임참여형', '신뢰자원중심형', '소극형' 등 네 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적극형'은 신뢰자원, 모임참여의 수가 평균이상인 경우로서 사회적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형성한 집단이며, '모임참여형'은 신뢰자원은 평균이하이지만 모임참여의 수는 평균이상으로 높은 경우이다. 반면 '신뢰자원중심형'은 신뢰자원은 평균이상이지만 모임참여의 수는 평균이하로 낮은 경우이며, '소극형'은 신뢰자원과 모임참여의 수 모두 평균이하로 낮은 경우로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소극적인 상태의 집단을 의미한다.

##### 2) 독립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크게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변수와 가족특성변수, 이주민특성 변수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특성변수는 연령, 국적, 교육수준, 취업경험, 거주지역, 결혼기간 변수들이다. 연령은 만 나이 계산하여 그대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국적은 조선족, 한족, 베트남·필리핀, 일본, 기타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에 투입되었으며, 비교기준으로서의 변수는 조선족이다. 교육수준은 무학은 1에서 대학원 졸업은 6에 이르는 6점 척도로써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취업경험은 현재 취업 중인 경우, 현재 취업은 아니지만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와 현재 모두 취업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Frequency(%)	Mean (SD)
Age		36.699(9.334)
Employment Experience	Currently employed	20,811(34.3)
	Once employed(not currently)	12,550(20.7)
	Never employed	26,563(43.7)
Nationality	Korean-Chinese	20,585(33.9)
	Chinese	8,531(14.0)
	Vietnamese · Filipino	22,431(36.9)
	Japanese	3,367( 5.5)
Education	Others	5,805( 9.6)
	None	469( .8)
	Elementary school	5,109( 8.4)
	Middle school	16,729(27.8)
	High school	25,543(42.5)
Region	College	11,405(18.8)
	Graduate school	912( 1.5)
	Big city	21,457(35.3)
Others	39,262(64.7)	
Duration of marriage		8.679(3.807)
Korean proficiency		3.219(1.073)
Contacts with a family in the home country	Over twice a week	18,693(30.8)
	Once a week	16,852(27.8)
	Once or twice a month	18,151(29.9)
	Over twice a year	2,867( 4.7)
	Once a year	649( 1.1)
Marriage channel	None	19,58( 2.6)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y	18,386(30.3)
	Family · friends	26,590(43.8)
	By oneself	8,119(13.4)
Chidren	Others	7,624(12.6)
	With	37,421(65.4)
Family type	Without	19,756(32.5)
	live with in-law parents	19,573(32.2)
	live separately from in-law parents	41,146(67.8)
Family income	Under ₩1,000,000	12,114(23.9)
	₩1,000,000-2,000,000	23,002(45.1)
	₩2,000,000-3,000,000	10,966(21.5)
	Over ₩3,000,000-4,000,000	4,876( 9.6)

경험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로짓분석에 투입하였다. 이 때 기준변수는 과거와 현재 모두 취업경험이 없는 집단이다. 거주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는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결혼기간은 조사시점에서 결혼년도를 뺀 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족특성변수는 가족구조 및 가족의 경제수준 등 가족의 외형과 배경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유무, 가족형태, 월소득 변수를 포함한다. 자녀유무는 자녀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가족형태는 배우자부모와의 동거여부로 측정하였는데, 배우자부모와 동거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은 1, 100~200만원 미만은 2, 200~300만원 미만은 3, 300만원 이상은 4를 부여한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므로, 이것을 연속변수로써 분석에 투입되었다.

이주민특성 변수는 한국어실력,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결혼 방법이다. 한국어실력은 '매우 서툴다'는 1, '매우 잘한다'는 5를 부여한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세 가지 영역을 합산한 값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실력이 좋을 것을 의미한다. 모국가족연락빈도는 '지난 1년간 본국 가족과의 연락빈도를 '전혀 없음'은 1, '1주일에 두 번 이상'은 6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연락빈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연속변수로써 분석에 투입하였다. 결혼방법은 결혼업체를 통한 중매결혼, 가족 및 친구소개, 스스로, 기타 등 네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로짓분석에 투입하였다. 이 때 비교기준은 결혼업체를 통한 중매결혼집단이다.

###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의 전반적인특성 및 사회적 관계의 현황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신뢰자원과 모임참여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고, 사회적 관계유형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럼으로써 특정의 사회적 관계유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가족특성, 이민자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 양상

#### 1) 신뢰자원의 현황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신뢰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국적 구성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어려운 일을 의논하고, 여가·취미를 같이 하고, 경조사에 함께 참석하는 신뢰자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의지할 수 있는 신뢰자원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Hwang, 2010; Lee, 2011; Kim, 2012; Rho et al., 2012)들에 의하면 이주민들은 고립되어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 결혼이주의 역사가 이십년 이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 사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어 우리 사회에 정착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인 가족·친척과 교류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신뢰자원이 어떠한 국적의 사람들인지를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한 Rho et al.(2012)의 연구는 사회적 적응을 위해 결속력이 강한 관계보다 결속력이 약할지라도 다양한 사람과 연계를 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는데 중요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뢰자원이 어떤 국적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즉 이주민으로서 현지인과 모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아래의 <Figure 1>에 제시되었다. '한국인중심'은 신뢰자원으로서 한국인만을 응답한 경우이고, '모국인중심'은 모국인만을 응답한 경우이다. '복합형'은 신뢰자원으로서 한국인과 모국인을 모두 응답한 경우이다. <Figure 1>에서 보듯이, 한국인과 모국인의 복합형

Table 2. The Presence of Trusted People

Activities of daily life	N (%)
discussing difficult matters	49,941(82.2)
sharing leisure or hobbies	44,213(78.8)
attending family events	46,927(84.3)



이 가장 많았고, 모국인만을 응답한 경우가 가장 적었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국인과 모국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모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에 어떤 국적의 신뢰자원과 함께 하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려운 일’, ‘여가·취미’, ‘경조사’ 등 세 가지 생활 영역으로 세분화 하여 각 영역의 신뢰자원의 국적을 살펴보았다. <Figure 2>를 보면, 전반적으로 일상생활 각 영역마다 한국인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한국인 친구를 만나고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한국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인 가족 및 지역사회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한국인 신뢰자원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결혼이주여성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일

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가깝게 거주하는 모국의 이주민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 역시 이들이 한국인과 함께 하는 비율이 높았던 이유일 것으로 추측해본다.

하위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어려운 일영역은 신뢰자원으로서 모국인의 비율이 더욱 높았던 반면, 여가·취미 영역과 경조사 영역에서는 한국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아무래도 어려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정서가 좀 더 잘 소통되는 모국인이 더 필요할 것이다. Rho et al.(2012)의 연구는 우리 사회의 결혼이주여성이 같은 국가 출신 이웃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등, 모국 출신 이웃이 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취미나 경조사 활동의 경우 우리사회를 잘 아는 한국인의 도움과 조언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특히 각종 경조사를 챙기는 일은 한국인, 특히 배우자 가족의 안내와 동행이 더욱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생활영역에서 한국인 신뢰자원의 비율이 더 높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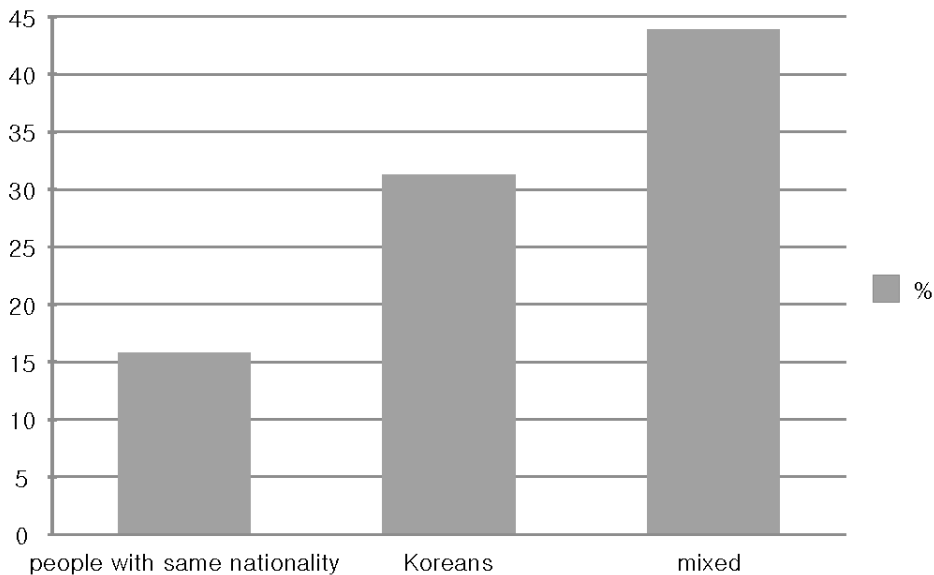


Figure 1. Composition of Trusted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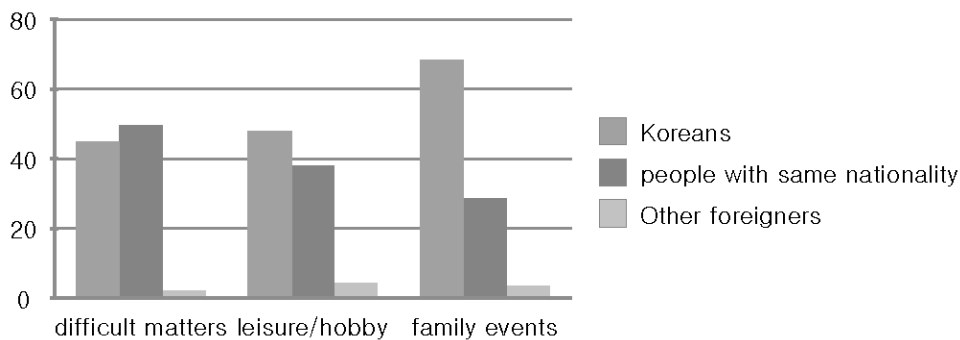


Figure 2. Nationality of Trusted People in Three Activities of Dail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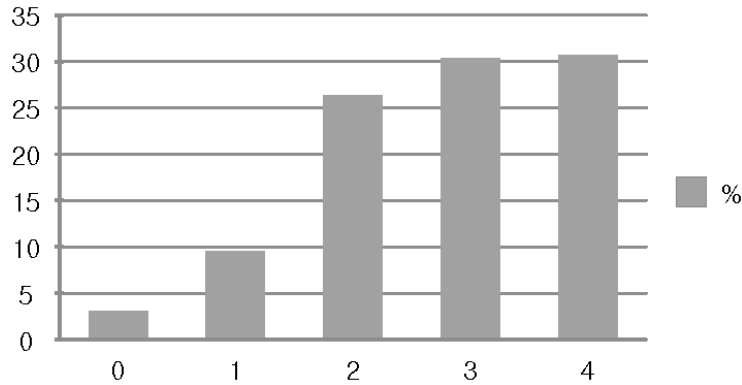


Figure 3. Number of Social Meetings

본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이들의 사회적 지원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인·모국인과 모두 교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Hwang (2010)은 질적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 결혼이주여성이 가족·한국인 친구·이주민 친구 등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일상생활 각 영역별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신뢰자원의 국적분포는 상이하였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각각의 필요에 맞게 능동적으로 유용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일 것이다(Lee, 2011; Kim, 2012; Rho et al., 2012). 반면, 타국 출신 이웃과의 교류가 저조하였던 것은 아무래도 타국출신 이주여성들끼리 언어적 상이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이거나(Park & Um, 2009), 아직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이나 모국인 친구 이외에 다른 이주민 여성들과의 교류를 원활히 할 만큼 이주여성들 간의 네트워크가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추측해 본다.

## 2) 모임참여의 전반적 현황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사적 모임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모임참여 여부, 모임참여의 수, 참여정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지 여부는 본인의 가족모임, 배우자 가족모임, 모국인친구모임, 지역주민모임 등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는 경우와 1년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Table 3>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다수가 각종 사회적인 모임에 1년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배우자 가족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장 참석이 낮은 것은 지역주민모임이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모임의 수를 파악하는 방

법으로써 사회적 활동범위를 확인해보았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아래의 <Figure 3>이다. <Figure 3>을 보면, 네 개의 모임 중 참여하는 모임의 숫자가 네 개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세 개, 두 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모임 수의 평균은 2.76개이었다. 이것은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들은 네 가지 가족·친구·지역사회 모임에 보통 두 개 이상 참석하는 등 가족 및 이웃과의 만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일까? <Table 4>에서 보듯이 이들의 모임 참석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즉, 전혀 없음은 0, 1년에 한번은 1, 1년에 2-3번 이상은 2, 한 달에 1-2번은 3, 1주일에 한 번은 4, 1주일에 두 번 이상은 5의 범위로서 측정하였을 때, 배우자 가족 모임을 제외하면 각 모임 당 응답이 대략 1에서부터 최대 2를 넘지 않았다. 이것은 척도에서 '1년에 한번'과 '1년에 2-3번'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임참여빈도는 배우자가 가족 모임을 제외하면 1년에 몇 번 정도에 국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모임들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과 상호교류를 하고 있으나, 그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이 각종 사적 모임에 참석하지만 참석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모임활동에 소극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임의 성격상 이들이 참석할 기회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모임, 모국친구모임들은 모임이 열리는 횟수 자체가 1년에 몇 번 정도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사대상의 참석정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Kim(2012)은 질적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외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이나 시댁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Table 3. Participation in Meetings

Meetings	N(%)
Their family	42761(70.4)
Husband's family	55478(91.4)
Friends from their home country	43073(70.9)
Community	26247(43.2)

Table 4. Degree of Participation in Meetings

Meetings	Mean(SD) (0-5)
Their family	1.42(1.38)
Husband's family	2.21(1.17)
Friends of their home country	1.98(1.72)
Community	1.04(1.70)

Table 5. Types of Social Networks

Type	N (%)
Active	24,382(43.7)
Participation in meetings-centered	7,819(14.0)
Trusted people-centered	13,278(23.8)
Inactive	9,377(16.8)

결국, 결혼이주여성의 저조한 모임참석빈도는 이들의 성향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이들을 둘러싼 가족 및 사회의 외적 환경에 의해 유도된 면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3) 사회적 관계유형의 현황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리고, 각종 사회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낮은 문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원을 확보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이 얼마나 사회적 지지원을 확보하며,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하지 않고 얼마나 활동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자원과 모임참여의 수 등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네 가지 사회적 관계유형을 도출하였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적극형(신뢰자원 상, 모임참여 상), 모임참여형(신뢰자원 하, 모임참여 상), 신뢰자원중심형(신뢰자원 상, 모임참여 하), 소극형(신뢰자원 하, 모임참여 하)이다.

이처럼 신뢰자원과 모임참여의 수를 중심축으로 구분한 사회적 관계망유형이 조사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분포로 나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적극형'으로서 조사대상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7%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그 다음이 '신뢰자원중심형'으로 조사대상자 중 23.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모임참여형'으로 조사대상자의 14.0%가 해당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관계의 폭이 적은 '소극형'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16.8%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조사대상 중 약 44%에 이르는 상당수가 사회적 지지원을 만들고 사회적 활동에 비교적 적극성을 유지하였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여전히 17%에 육박하는 소극형의 비율은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현주소는 '고립' 보다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에 더 가까운 듯하다. 이는 결혼을 통해 한국인과 가족을 만들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가족 및 친척들과 교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은 타 이주민의 경우와 달리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

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목이다. 동시에 사회적 관계유형이 다양하였다는 것은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이 단일한 패턴이 아니라는 점, 예를 들면 어떤 여성들은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 보다 소극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과연 결혼이주여성이 상이한 사회적 관계망유형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2. 사회적 관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양상이 이들의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이주민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위의 네 가지 사회적 관계유형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각 유형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다항로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Table 6>은 다항로지회귀분석 결과이며, 이 때 각 유형간 비교기준은 '소극형'이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이주민특성 중 대다수의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중 가족형태와 자녀유무요인만이 각 유형을 구분하는데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이주민특성에 따라 이웃관계유형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형은 소극형과 반대로 신뢰자원을 확보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이다. <Table 6>을 보면, 적극형의 경우 투입된 대부분의 개인, 가족, 이주민특성들이 소극형과 구별되었다. 이것은 소극형과 적극형에 속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 매우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극형에 분류된 결혼이주여성은 소극형에 비해 연령이 더 낮고, 조선족 여성보다 동남아·일본·기타 국적의 여성의 경우이고, 교육수준이 높았다. 또한 취업경험의 경우,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과 과거에 한번이라도 취업을 한 사람 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현재 취업여부는 두 유형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반면 거주지역과 결혼기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적극형은 소극형에 비해 대도시보다 지방에 거주하고, 결혼기간이 더 긴 경향이다. 이주민 특성의 경우 한국어능력이 좋으며, 모국 가족과 좀 더 빈번한 연락을 하며, 배우자를 만난 방법은 결혼업체를 통한 경우 보다 친구 소개, 스스로 등 다른 방법의 경우 적극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족특성의 경우 가족소득만이 적극형과 소극형을 구분하는 요인이었는데, 적극형이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모임참여형은 소극형과 비교할 때 모임참여의 측면에서 구분되는 유형이다. 즉, 소극형에 비해 모임활동을 더 많은 집단이다. 분석 결과, 소극형과 모임참여형을 구분 짓는 요인은 위의 적극형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였다. 개인특성의 경우 국적, 교육수준, 취업, 거주지역의 효과는 적극형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으나, 적극형과 달리 연령과 결혼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이주민특성의 경우 적극형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능력요인과 모국 가족과의 연락빈도, 결혼방법이 소극형과 모임참여형을 구분짓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가족특성 역시 앞서 적극형과 동일하게 가족 월소득만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신뢰자원중심형은 소극형과 비교할 때 신뢰자원의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유형이다. 즉, 소극형보다 일상생활에서 신뢰자원을 좀 더 폭넓게 확보한 집단이다. 분석 결과, 이 유형은 주로 개인특성요인과 이주민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구체적인 영향요인은 앞의 적극형 및 모임참여형과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먼저 개인특성요인의 효과는 위의 적극형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양상이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조선족 여성보다 동남아·일본·기타 국적의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뢰자원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취업경험의 경우, 앞서 적극형·모임참여형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주민특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앞의 두 유형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모국가족과 빈번히 연락할수록 신뢰자원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결혼방법은 적극형, 모임참여형의 경우와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특성의 효과 역시 앞서 적극형 및 모임참여형의 경우와 동일하게 두 유형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가족특성변수는 오직 월소득뿐이었다.

정리하면, 신뢰자원과 모임참여의 측면에서 모두 소극적인 소극형의 집단과 그 반대로 모두 적극적인 적극형의 집단은 개인특성, 이주민특성, 가족특성 등 거의 모든 요인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소극형보다는 적극적이지만, 신뢰자원과 모임참여의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한 유형인 모임참여형·신뢰자원중심형은 주로 개인적 특성과 이주민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반면, 가족특성의 효과는 세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월소득만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한편, 국적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사회적 관계망유형을 구분 짓는 매우 강력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Kim, 2006)을 고려할 때,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삶의 모습 역시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 조선족 여성들이 다른 국적의 여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좀 더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Table 6. Factors Contributing to the Types of Social Networks (RC: Inactive type)

Variable	Active		Participation in meetings -centered		Trusted people -centered	
	B	S.E.	B	S.E.	B	S.E.
Age	-.013***	.002	.000	.003	-.008**	.003
Nationality (RC=Korean-Chinese)						
Chinese	-.009	.050	-.089	.066	.043	.053
Vietnam · Filipino	1.027***	.053	.959***	.066	.456***	.057
Japanese	1.868***	.101	.413*	.137	1.319***	.108
Others	.547***	.062	.565***	.077	.279***	.066
Education	.184***	.018	.083***	.023	.040*	.019
Employment(RC=never)						
Currently	.061	.039	.064	.049	-.030	.041
Once	.126**	.042	.159**	.054	-.070	.046
Region(big city=1)	-.174***	.031	-.116**	.040	-.024	.034
Duration of marriage	.019**	.005	-.009	.007	.005	.006
Korean proficiency	.292***	.018	.111***	.023	.183***	.019
Contacts with a family in home countries	.218***	.013	.088***	.021	.123***	.017
Marriage channel (RC=matchmaking agency)						
Family · friend	.201**	.066	.225**	.081	.021	.071
By oneself	.134*	.055	.057	.071	-.030	.059
Others	.211***	.042	.097	.052	.011	.045
Children(with=1)	-.032	.038	-.012	.049	-.048	.041
Family type (live with in-law parents=1)	.031	.035	-.017	.044	-.006	.038
Family income	.327***	.018	.112***	.023	.230***	.020
-2LL			100869.432			
X <sup>2</sup> (df)			3158.964(72)***			

1) \* $p < .05$ , \*\* $p < .01$ , \*\*\* $p < .001$

2) RC: reference category

3) dummy variables: region, children, family type

Kim(2012)의 연구는 조선족 여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회적 관계특성을 비교하면서 조선족 여성들이 베트남 여성들에 비해 다문화가정여성들과의 교류빈도가 낮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조선족 여성들이 아무래도 외형상 한국인과 차이가 없고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어서 적응을 위해 다른 다문화여성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Kim(2008)의 연구는 중국, 일본, 베트남 아내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비교할 때 중국인 아내가 일본인 아내에 비해 현격히 낮았고 중국인 아내와 베트남 아내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 역시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거주지역 요인에서 대도시 거주 여부는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수준을 살핀 선행연구(Kwon & Park, 2007)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지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대도시의 경우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갖추기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워낙 삶의 반경이 넓고 복잡하여 믿을만한 이웃을 찾고 필요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대도시보다 공동체적 성향이 높기 때문에(Kwon & Park, 2007) 주민간의 교류의 기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이 본 연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대도시에서 사는 것이 이주여성들이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

각한다.

한편 교육수준, 한국어능력 등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일관되게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중요하였다. 특히, 선행연구(Kwon & Park, 2007; Kim & Lee, 2010; Won & Song 2011; Bae & Kim, 2012)에 의하면, 한국어능력은 생활만족 등 전반적인 삶의 질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아무래도 언어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없고 한국생활의 경험이 많이 누적되면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좀 더 거리낌이 없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이웃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모국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과 한국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서로 관련되었다는 점이다. 모국의 가족과 빈번한 연락을 유지하는 이주여성이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연구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Kim, 2010; Kim, 2012; Rho et al., 2012)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 중에 모국 가족과도 활발히 연락·접촉하고, 동시에 한국 이웃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등 초국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례들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초국적 네트워크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하겠다.

이주민특성 중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와 만난 방법 역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며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혼업체의 소개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경우 보다 가족·친구의 소개 등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경우 좀 더 사회적 관계가 폭넓은 경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Kim (2012)은 질적 분석을 통해 가족·친지 등 소개를 받아 결혼할 경우 결혼업체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보다 이미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방식의 차이는 결혼 시작부터 우리 사회 내 알고 지내는 지인들의 범위의 차이와 연결되고, 이것은 다시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를 유발함을 시사한다.

가족관련 요인 중에서 사회적 관계유형을 결정짓는데 가장 일관적으로 작용하였던 요인은가족의 월소득이었다. 월소득이 높은 집단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관계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Cornwell and Cornwell(2008), Santon-Salazar and Dornbusch(1995)는 사회계층에 따라 상담과 서비스, 교육 등 전문가들과 접촉가능성이 균등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 있어서 계층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이와 유사하게 결혼이주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이가 이웃과의 접촉 및 사회적 활동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 모든 유형을 통해 일관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갖지 않았던 요인은 가족특성요인 중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자녀유무이었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확대가족 여건, 즉 가족의 외형적인 특성 보다 결혼이주민의 개인적 특성과 인적 자원, 그리고 월소득을 포함하는 핵가족의 상황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 V. 맺는말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형성한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생태체계와 교류하며 우리 사회에 적응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형성한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지지원의 역할을 하며 이주여성의 적응을 돕는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규모 자료인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과 그 수준이 어떠한지 살피고,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을 위한 지원이 어느 정도 있고, 각종 모임에 얼마나 많이 참석하며 가족·이웃과 교류를 만들어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자원의 분포와 가족·친구·지역사회 모임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신뢰자원의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다수는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도움을 받는 신뢰자원이 주변에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자원의 국적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과 모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인과 함께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상생활을 세 가지 하위영역, 즉 '어려운 일', '여가·취미', '경조사' 영역으로 좀 더 세분화 하여 각 영역에서 신뢰자원은 어떤 국적의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한국인은 '경조사'를 함께하고, 모국인 친구는 '어려운 일' 영역을 함께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한국인과 상호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살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Williams, 2006)에 의하면 현지에서 사귀 친구들과의 교류는 이주민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실생활

에서 매우 유용한 도움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주민들은 현지인 혹은 모국 친구들과 이주국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주노동자 혹은 기타 외국인들과 달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과의 상호교류의 필요성과 욕구가 더욱 높을 것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인과 가족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척들이 생기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뢰자원의 범위는 더 넓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각하는 이웃교류의 필요성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문화에 적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한국인과의 상호작용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각종 경조사를 챙기는 활동 등은 가족을 포함하여 한국인 친구들과로부터 정보를 듣고 도움을 얻어야 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인 혹은 모국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면서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면서 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두 번째 특성으로 모임참여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얼마나 가족·이웃과 교류하며 사는지 사회적 활동정도를 가능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다수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족·친구모임 중 한 가지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총 4개의 모임 중 평균 2-3개 정도의 모임에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참여하였으며, 응답빈도를 보면 4개모임 모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의 측면을 보면, 전반적으로 참여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 중 배우자 가족모임의 참여 정도가 가장 높았고 지역주민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친구·지역사회의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인 이웃과 어울릴 수 있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이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 분석 결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각종 모임들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다는 것은, 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일견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활동범위가 여전히 가족에 국한되어 있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소극적임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외적 조건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임 혹은 지역사회 모임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모임이 열리는 횟수 역시 이들의 참석의사와 관계없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

여 이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신뢰자원과 모임참여로써 유형화하여, 이것의 분포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적극형, 모임참여형, 신뢰자원중심형, 소극형으로 나누어보았다. 그 결과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적극형, 모임참여형, 신뢰자원중심형에 속하였으나, 소극형에 속하는 경우도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약 17%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 소극적인 이주여성들 역시 적지 않음을 주목하고 이들의 특성과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유형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로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과연 각각의 사회적 관계유형을 구분하는데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이주민 특성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적극형의 결혼이주여성성과 소극형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이주민 특성의 대부분에서 확연히 차별화되었다. 개인특성의 경우 연령이 어리고 교육수준이 높고 과거에 취업 경험이 있으며 조선족보다 타국적의 이주여성들이,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적극적 사회적 관계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족특성의 경우, 가족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적극형에 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주민 특성의 경우 한국어능력이 좋고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방법이 결혼업체를 통하지 않았을 때 적극형의 사회적 관계유형을 나타내었다. 모임참여형은 적극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연령과 결혼기간요인의 효과가 없었다. 신뢰자원중심형은 주로 개인 특성과 이주민특성 면에서 소극형과 구분되었다. 즉, 연령, 국적, 교육수준, 한국어능력, 모국가족연락, 월소득이 신뢰자원중심형을 설명하는 주요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이주민의 특성의 대부분이 이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의 차이를 유발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교육수준, 한국어능력, 과거 취업경험 등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의 인적자원과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험,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월소득이 소극형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결혼이주여성성과 비교적 적극적인 사회관계를 맺는 이주여성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인적자원을 많이 갖추고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좀 더 폭넓고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계층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통한 인맥형성과 접촉, 정보 등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자본의 획득이 계층에 따라 불평등함을 보고한 연구

결과(Cornwell & Cornwell, 2008; Yee & Nam, 2008)를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원, 경제적 여건 등 현실적 여건의 차이가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를 가져왔으며, 다시 이러한 차이가 곧 사회적 지원의 확보와 통합에서의 불평등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인적, 경제적 자원의 다양성과 이로 인한 계층화 및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의 가능성을 사회가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을 단일한 청사진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들 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불리한 여건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과의 연락과 한국의 사회적 관계망의 관련성이다. 이미 국내의 선행연구(Hwang, 2010; Kim, 2010; Kim, 2012)들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의 가족과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이주자들이 출신지 가족과 접촉을 통해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 이주자들의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이들이 정착지 국가에 적응하고 통합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이다(Guarnizo et. al., 2003). 이를 본 연구결과와 연결 지어 본다면, 모국가족과 연락이 단순히 이주여성들이 본국 가족과 접촉을 유지하는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자원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적응과 통합을 위하여 이들의 본국과의 네트워크를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들의 고유문화와 한국 문화를 소통할 수 있는 모임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Lee, 2011; Kim & Hoe, 2012).

한편 국적의 효과를 볼 때, 조선족 보다 타국적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관계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선행연구(Kim, 2012)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된 바 있다. 중국 조선족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이주여성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며, 사회적 연결망 형성의 욕구 역시 더욱 커질 것임을 예상하는 대목이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출신지역별 다문화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을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왜 이처럼 국적별로 다문화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차이가 나는지, 출신지역별로 다문화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은 어떠한 독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이들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 우리 사회 결혼이주여성의 특

성, 예를 들면 국적, 결혼동기, 거주지역 등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패턴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이주여성들의 삶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들간에 존재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로 인한 계층화의 문제, 혹은 이들의 사회참여의식, 정체성, 적응 전략 등 사회에 통합되어가는 적극적·능동적 주체로서 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 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 실태와 특성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관계를 신뢰자원과 모임참여 수에 한정하였고, 투입변수들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주민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면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논의를 보다 심층적이고 다층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변수들을 고려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때 본국 혹은 한국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어떠한 지원교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본국과 초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결망에서의 교류가 어떠한 특성과 기여를 하는지, 가족·이웃·지역사회 등 다양한 생태체계에서 가족·이웃과의 상호교류가 어떠한지 등 이주민 삶을 의존적·문제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 보는 작업들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Bae, K. & Kim, S.(2012).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 regards to the influence that family income and job status have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3), 5-27.
- Boisjoly, J., Duncun, G. J. & Hofferth, S.(1995). Access to social capital. *Journal of Family Issues*, 16(5), 609-631.
- Cha, S.(2007). Marital status of elderly: does it really matter for health?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7(2), 371-392.
- Chung, K. & Han, J.(2009).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y*, 32(2), 87-114.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eptember), 595-5120.
- Cornwell, E. Y. & Cornwell, B.(2008). Access to expertise as a form of social capital: an examination of race-and class-based disparities in network ties to experts. *Sociological Perspectives*, 51(4), 853-876.
- Delechat, C.(2001). International migration dynamics: the role of experience and social networks. *Labour*, 13(3), 457-486.
- Granovetter, M.(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ranovetter, M.(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ological Theory*, 1, 201-233.
- Guaranizo, L. E., Portes, A. & Haller, W.(2003). Assimilation and transnationalism: determinants of transnational political action among contemporary migrant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6), 1211-1248.
- Han, G.(2006). Being "Korean" wives: dilemmas and choices of Vietnamese and Filipino migrants.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39(1), 159-176,
- Han, G., Kim, J. & Kim, K.(2003). Supportive and conflictual social networks and mental health of the middle-aged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2), 155-170.
- Hwang, J.(2010). Social network and diverse action strategies of migrant women in Korea: network typology based on the qualitative interview analysi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6(4), 1-38.
- Jun, H., Min, S., Lee, M. & Choi, H.(2009). Path of the variables to migrant women's families' heal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2), 5-27.
- Jung, K.(2004). Impact of social relations on youth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1), 235-252.
- Kang, Y.(1999). What are inside the Korean-Chinese international marriag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4(2), 61-80.
- Kim, D.(2008). A conceptual scheme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Koreans and analyses of the marriage and divorce registration dat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y*, 29(1), 25-56.
- Kim, D.(2010). Inter-marriage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focused on Filipina wives in South Korea. *The Southeast Asian Review*, 20(2), 31-72.
- Kim, K. & Hoe, T.(2012).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ulti-cultural society on the basis of social capital in the rural area of Korea.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2(1), 89-131.
- Kim, M.(2012). The analysis on social network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3), 469-488.
- Kim, S. & Lee, C.(2010). The effect of linguistic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among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1), 5-20.
- Kwon, K. & Park, K.(2007).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of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Studies*, 14(2), 187-219.
- Lee, C. & Kim, S.(2010).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mong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0, 299-322.
- Lee, H.(2005). Marriage migration to South Korea: issues, problems, and respons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y*, 28(1), 73-106.
- Lee, S. & Jang, I.(2008). Social network and social services accessibility of migrant work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243-268.
- Lee, Y.(2011). Analysis of female trans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the diaspora.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3(2), 121-148.
- Lin, N.(1999).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6), 785-795.
- Lin, N., Ensel, W. M. & Vaughn, J. C.(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393-406.
- Morrison, E. W.(2002). Newcomers' relationships: the role of social network ties during soci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6), 1149-1160.
- Park, K.(2000). Informal social ties of elderly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4, 621-647.
- Park, M.(2007). Buffering effects of Strengths and Social Support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ome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2(2), 197-211.
- Park, M. & Um, M.(2009). A study on the social rela-

- 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4(2), 1-26.
- Park, Y.& Kim, U.(2006).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Korean societ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1), 161-195.
- Rho, Y., Lee, S., Park, H. & Rhee, C.(2012). Eco-centered network analysis of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2), 159-183.
- Ryan, L., Sales, R., Tilki, M. & Siara, B.(2008).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the experiences of recent polish migrants in London. *Sociology*, 42(4), 672-690.
- Stanton-Salazar, R. D.(1995). Social capital and the reproduction of inequality: information networks among Mexican-origin high school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68(April), 116-135.
- Statistics Korea. www.kosis.kr.
- Son, J. & Han, G.(2012).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on health among older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economic resources and social network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6(3), 6-40.
- Williams, L.(2006). Social networks of refugees in the United Kingdom: tradition, tactics and new community spac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2(5), 865-879.
- Won, S. & Song, I.(2011). The effect of personal, cultural, and social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2), 95-113.
- Yee, J. & Nam, E.(2008). The social capital of Koreans: determinants of personal ties and its effec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7), 178-214.

접수일 : 2013년 05월 06일

심사일 : 2013년 06월 0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8월 02일